

# 『통일 안보에서 최첨단 문화 예술의 도시로의 변화, 경기도 파주시』

지리교육과 2학년 박기역

## 1. 파주개관



〈지리적으로충지 파주〉

출처 : 파주시 사이버홍보관

파주시는 서울과 개성을 잇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로 나아가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와 통일로인 자유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반경 60km내에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평택항의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어 도로교통망, 해상교통망 그리고 항공교통망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로 그리고 북으로 이어지는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 2. 파주시의 자연환경

파주시는 마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하며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색을 띤다. 동쪽에는 남쪽의 북한산에 연속되는 저산성의 산지가 널리 분포하나 서반부는 임진강 하류와 한강의 하류 지역으로, 대체로 저평한 지형을 이루고 비옥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동부의 토양은 비교적 척박하여 10cm의 큰 자갈이 섞여있는 곳이 많으며, 풍화암반층이 노출된 곳이 많으나 서부의 곡부지역은 비옥한 토양으로 형성되어있어 경작지로 이용된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서쪽과 경계를 흐르는 임진강과 서남쪽을 흐르는 한강이 있으며 여러 하천이 지나가는 시의 서쪽에는 해안평야가 넓게 전개되어 곡창지대를 이룬다. 임진강 하류지역은 만조 때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탄현면과 장단면의 하안가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이곳은 해수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홍수 시 만조시기와 겹치면 문산읍까지 해일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나 최근 인공방조제의 건설로 피해가 많이 감소되었다. 기후 조건으로는 북부의 대륙성기후와 남부의 난온대성기후의 중간적인 특색을

떨다. 기온은 연평균기온 11.5℃, 1월 평균기온 -4.0℃, 7월 평균기온 24.7℃, 연교차는 약 30℃정도 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299mm로 임진강 다우지에 속하며 벼농사에 적합하다.

### 3. 파주의 경제 및 산업

분단현장의 중심에서 통일 안보의 도시로만 인식되었던 파주시는 현재 최첨단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인식과 안보현장의 중심에서 최첨단 U-CITY, 최첨단 기업도시, 균형발전의 도시, 사통팔달의 열린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파주시의 랜드마크 교하 신도시는 최첨단 유비 쿼터스 기술이 채택된 U-city이다. 주거문화의 혁명을 실현하고 쓰레기 중앙 집중 처리, 교통·방범 등 도시안전시설과 최첨단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파주는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4개단지에 국내외 LCD협력 업체들이 입주하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고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으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를 구축하고 있다. 제2자유로 건설과 경의선 복선전철화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접근로를 확대하고 관내 35개 도로를 정비해 사통팔달의 열린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는 통일시대 물류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다.

#### 1) 파주 출판도시(Paju Book City)



〈파주출판도시〉  
출처: 파주시청

1997년 3월 31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도시는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48만평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문화산업단지이다. 1989년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를 확보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주체적 문화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불합리한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디자인, 인쇄, 유통 등 출판과 관련된 산업체가 발족하여 있다. 이곳은 특

히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책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측면(공연, 전시)을 포괄하는 출판문화의 메카라는 점이 남다르다. 파주 출판도시의 가장 큰 목표는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움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건축미 넘치는 곳이다. 영국 웨일즈의 헤이온와이와 벨기에 레뒤, 네덜란드의 브레드보트 등 유명 책 마을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출판문화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출판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

## 2) 파주 LCD산업단지(Paju Local LCD Industrial Complex)

파주 LCD산업단지란 본 단지, 당동·선유협력단지, 월릉계열단지 4개 공단 총 140만평 규모의 23조원을 투입 세계최고 경쟁력 LCD산업중심지 조성으로 차세대 국가 경제원동력 기능의 클러스터<sup>1)</sup>이다. 이곳은 LG디스플레이 LCD의 TFT LCD 패널 생산 공장의 본 단지와 유리 기관, 부품, 장비 등 후방 산업의 협력업체 단지 그리고 LG전자의 LCD TV공장 등 전방 산업 시설까지 갖춘 총 140만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국내외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는 협력업체 단지(당동, 선유지구)는 약 59.1만평 규모로서 LG디스플레이 LCD와 日 NEG의 합작회사인 PEG(파주전기초자)가 이미 가동에 들어갔으며, 35개 내외의 협력업체가 착공을 시작해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첨단 LCD기술을 연구하는 디스플레이 연구단지 및 배후 생활 문화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종합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LCD의 직접고용효과 2만 5천명을 비롯해 협력업체 1만 명과 LG계열사 입주 시 7천명 등 4만 2천명의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청년 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일본전기초자(NEG), 등 첨단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외국 자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경기 서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균형 발전 효과를 촉발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1) 비슷한 업종이면서도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대학과 연구소·기업·기관 등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곳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다.

### 3) 교하 신도시

파주교하지구는 파주시의 서남측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30km, 파주시청에서 6km, 일산신도시에서 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인근에 문발지방공단(7만7천 평),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48만평), 통일동산이 위치하고 있다. 파주교하지구의 교통은 지구를 통과하는 지방도 56호선과 접속이 되고 지구 동쪽부분에 일산신도시 및 시도 1호선과 연결하는 대로가 신설되는 등 주변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건설되어 서울도심지, 일산신도시, 문산, 금촌, 김포공항 및 인천 국제공항과도 교통접근성에서 매우 양호하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파주교하 지구는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통일한국의 중심도시인 파주시의 21세기 으뜸주거단지로서 수도권 외곽의 전원형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 주택지를 중밀도 규모인 용적률 150~180%로 계획하였고 지구



《교하 신도시 위치 및 주변도로계획》

출처 : 한국토지공사

내 수립이 양호한 9만8천 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한층 쾌적한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지구 외 농경지와와의 조화를 위하여 지구 남쪽 중앙에 전용주거 단지를 배치하여 전용주거지와 일반주거지를 차별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원을 환상 형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 4. 파주시의 관광자원

### 1) 파주 영어마을

교육형 테마파크 형태인 파주 영어마을은 영어권 국가 마을의 모습을 본떠 건축한 곳인데 이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이국적 환경 속에

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전 연령층이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조성한 영어마을이다. 지난 2006년 4월 국내 최대 규모로 개원하였으며 인근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도시 등 관광문화산업 시설과 연계한 타운형 영어마을로 교육공간과 체험공간,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각종 체험시설, 놀이 및 특화시설 등 모든 시설이 주거 공간이자 체험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인기가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영어 교육을 취재하기 위한 일본, 독일 등의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잇따르고 있다.

## 2) 도라산역

도라산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이다. 2002년 2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그리고 남북화해의 미완성 역이기도 한 도라산역은 2001년 10월 임진강역 개통에 이어 2003년 2월 13일 설날에는 철도운행이 중단된 지 52년 만에 임진강을 통과하는 특별 열차가 운행되었다. 이곳은 남측 최북단역인 관계로 향후 경의선 철도연결이 완료되어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도라산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가는 사람 및 화물 등에 관세 및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즉 이곳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이면서 남북교류의 관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장단콩 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장단콩 축제는 파주 특산물인 DMZ 청정지역에서 자란 장단콩을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이라는 주제로 매년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007년에는 75만 명이 방문해 6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국명품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단콩의 브랜드화를 통해 파주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많은 관광수입을 얻고 있다.

## 5. 파주시의 지역혁신활동

### 1) 파주시의 지역혁신 활동

파주시는 현재 'G&G파주(good&great PAJU)' 라는 슬로건을 내 새우며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첫째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이다. 깨끗한 도시 파주는 쓰레기투기, 불법-불량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이 없는 '4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의 강력한 지휘아래 사업들은 진행시켜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통해 파주시 전역에서 플랜카드가 사라지고, 전주와 버스정류장에 마구 붙어있던 인쇄 광고물들도 자취를 감췄다. 표준 연합간판 제도를 도입하여 통일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든 것이다. 두 번째 노력은 '살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기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LCD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자족적 교육 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 파주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최신 홍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로 유통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 2) 파주시의 지역혁신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파주시가 행했던 첫 번째 지역혁신 활동으로 깨끗한 파주 만들기는 엄격한 규제와 단속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표준 연합 간판 제도 덕에 통합간판이 만들어 졌으며, 덕분에 질서정연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 통합간판이 보여주기 식의 결과물로만 나타나고 있다. 시내와 외곽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며,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지만 쓰레기통을 찾아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치된 쓰레기통도 너무 작고 불품이 없다. 시내의 광고물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 외 도시곳곳의 간판들은 여전히 현란하고 지저분하다. 외곽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하며 새로 난 도로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구 도로들은 아직도 혼잡하고 엉망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시행했던 살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 지역혁신 활동도 그 출발은 좋았으나,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육기관, 대형 종합병원, 문화시설, 쇼핑, 생활편의시설 등과 같은 자족도시가 갖춰야 하는 기본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파주 영어마을,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헤이리 예술 마을, 다양한

책을 생산하는 출판단지들을 보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한곳만 개발되어 있을 뿐 각각 연계된 인프라는 부족하다. 또한 교통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파주시는 한 시간에 한번 있는 경의선과 두 종류의 버스 노선밖에 없다. 이것은 서울과의 인접성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2009년부터 경의선 복선 전철효과 완료돼 5분마다 전철이 달린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의 출퇴근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너무나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다. 파주시가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하 신도시 또한 그 커다란 땅의 효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파주시는 지역혁신 활동을 통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통문제의 해결과, 각 산업단지들의 인프라 구축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도모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995 / 파주군 / 파주문화원
- 1999 / 파주의 역사와 문화 / 한양대박물관·문화인류학과
- 2001 /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경기도박물관
- 2007 / 파주 관광 안내도 / G&G PAJU

#### 〈 참고사이트 〉

-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 한국토지공사 <http://www.lplus.or.kr>
- 파주 프로젝트 카페 <http://cafe.naver.com/projectpaju>